

맷 감독 “성적 좋은 선수, 타격·포구 전 ‘6인치’ 서 갈린다”



윌리엄스 감독



KIA, 들쭉날쭉 경기력에 중위권서 성적 ‘땀땀’
윌리엄스 감독, 꾸준함의 비결로 ‘6인치론’ 설파
몸, 최적 위치에 있어야 집중력 발현돼 좋은 결과

올 시즌 KIA 윌리엄스 감독이 가장 많이 이야기 하는 단어는 ‘꾸준함’이다. 선수들에게 가장 강조 하는 부분이기도 하고, 지도자로서 목표로 하는 부분이기도 하다.

하지만 윌리엄스 감독의 바람과 달리 ‘꾸준함’은 올 시즌 KIA에 화두 같은 단어다.

들쭉날쭉한 전력으로 예측 불허의 시즌을 보내고 있는 KIA는 주중 잡실 원정에서도 ‘도깨비팀’이 됐다.

앞선 SK와이번스와의 주말 3연전에서 극적인 뒤집기 쇼를 펼쳤던 KIA는 LG 트윈스에 허무한 2패를 기록했다.

18일 경기에서는 5-3으로 앞선 9회말 마무리 전 상황인 불펜세이버를 기록했고, 10회 연장승부에서 정해영이 김현수에게 끝내기 홈런을 맞으면서 5-6 역전패가 기록됐다.

19일에는 수비 실수 연발로 1-10 대패가 기록됐다.

윌리엄스 감독은 ‘6인치’에서 꾸준함의 답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감독이 아닌 야구 선배로서 KIA 선수들에게 이야기해줄 수 있는 꾸준함의 비결로 윌리엄스 감독

은 “스윙이 일어나기 6인치 전(15.24cm)이다”고 설명했다.

그는 “배트 맞기 전에 타자가 어떤 공을 치느냐를 정하는 순간이기 때문에 중요하다. 내가 원하는 공이 왔을 때 맞는 스윙을 하는 게 중요하다”며 “공격적으로 봤을 때 선구안과 배트에 맞기 전 6인치를 신경 쓰고 자기 것으로 만든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윌리엄스 감독은 수비에서도 ‘6인치론’을 펼쳤다.

그는 “수비도 마찬가지다. 글러브에 공이 들어오기 6인치 전 순간이 중요하다”며 “글러브 위치도 중요하고 몸의 위치도 수비에 최적의 위치를 잡고 있는 게 중요하다. 이게 송구로도 연결된다”고 설명했다.

윌리엄스 감독이 강조하는 6인치는 결국 준비와 기회로 연결된다.

그는 “이런 것들을 정리한 느낌으로 웨이트장에 현수막을 걸었다. 성공은 적절한 준비와 기회가 만났을 때 일어난다고 걸려있다”며 “모든 것들을 포함한 문구가 아닌가 한다. 준비를 잘한다면 기회가 왔을 때 성공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공격과 수비 순간순간에 대한 준비와 집중력을 강조하는 윌리엄스 감독.

윌리엄스 감독이 ‘6인치론’에 가장 귀를 기울여야 할 선수는 바로 최원준이다.

최원준은 20일 NC 다이노스와의 8차전에서 톱타자로 나섰다. 지난 13일 LG 원정을 시작으로 7경기 연속 톱타자로 선발 출장했다. 대신 수비 위치가 달라졌다.

중견수를 맡았던 최원준은 이날 경기에서는 3루수로 선발 출장했다. 3루를 지켜왔던 베테랑 나주환이 허리 근육통으로 부상자 명단에 이름을 올리면서 3루 경험이 있고, 훈련을 해왔던 최원준이 내야로 이동했다. 중견수로는 ‘수비의 달인’ 김호령이 나섰다.

최원준의 공격 상승세를 잇고, 외야 수비 강화를 위한 라인업이다.

전날 최원준은 여러 차례 수비에서 아쉬움을 노출했다. 하지만 공격에서는 최근 KIA에서 가장 핫한 선수다.

최원준은 이날 경기 전까지 선발로 나선 최근 6경기에서 25타수 11안타로 0.440의 타율을 기록했다. 7차례 득점에도 성공하면서 공격의 한 축으로 역할을 해냈다.

스피드와 공격을 두루 갖추면서 ‘기대주’로 많은 기대를 받은 선수지만 최원준에게 늘 아쉬운 부분은 ‘꾸준함’이었다. 윌리엄스 감독이 이야기하는 ‘6인치’와 ‘꾸준함’이 KIA 순위 싸움의 원동력으로 작동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권순우, 6개월만에 프로 테니스대회 출전

ATP 투어 재개...웨스턴 & 서던오픈서 세피와 1회전 격돌

권순우(70위·CJ 후원)가 남자프로테니스(ATP) 투어 웨스턴 & 서던오픈(총상금 629만780달러) 단식 예선 1회전에서 안드레아스 세피(88위·이탈리아)를 상대한다.

권순우는 21일(한국시간) 미국 뉴욕에서 개막하는 이 대회 단식 예선에 출전해 본선 합류에 도전한다. 예선 1회전 상대 세피는 36세 베테랑으로 2013년에는 세계 랭킹 18위까지 올랐던 선수다. 투어 대회 단식 우승 경력도 세 차례나 있다.

예선 12번 시드를 받은 권순우는 세피를 꺾을 경

우 2회전에서 스테파노 트라바글리아(86위·이탈리아)·노르베르트 고프보(109위·슬로바키아) 경기 승자를 만난다.

예선 2연승을 하면 본선에 진출할 수 있다.

ATP 투어는 올해 2월 말 이후 코로나19 때문에 중단됐으며 이번 대회를 통해 약 6개월 만에 재개된다. 권순우도 2월 말 멕시코 대회 이후 거의 반년 만에 다시 공식 대회에 출전한다. 권순우는 이 대회에 이어 31일 이번 대회와 같은 장소에서 개막하는 메이저 대회 US오픈에 나갈 예정이다. /연합뉴스

‘투르 드 프랑스’ 시상대 미녀들 사라진다

성차별 비판에 ‘여성 2명이 선수에게 볼 키스’ 전통 바꾸겠다 발표

세계적인 도로 사이클 대회인 ‘투르 드 프랑스’ 시상대에서 짧고 매력적인 여성 2명이 선수에게 볼 키스하는 모습이 이제 사라진다.

AFP 통신에 따르면, 투르 드 프랑스 책임자 크리스티앙 프뤼돔은 20일(한국시간) 프랑스 니스에서 “이제는 달라질 것”이라며 성차별적이라는 비판을 받아온 시상식 전통을 바꾸겠다고 발표했다.

프뤼돔은 “지금까지 우리는 우승자가 두 여성에게 둘러싸여 있고, 양옆에는 지역의 선출 공직자 5명, 후원사 대표 5명이 서 있는 모습에 익숙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대회에서는 처음으로 지역 선출 공직자 1명, 옐로저지(우승자가 입는 옷) 후원사 대표 1명과 주회 측의 남성 1명, 여성 1명이 시상대에 설 것”이라고 밝혔다.

“시상대 미녀”는 투르 드 프랑스의 오랜 전통이지만, “여성은 보상품이 아니다”라는 비판을 지속해서 받아왔다.

투르 드 프랑스의 시상대 미녀들은 우승자 양 볼에 키스하며 ‘포도 타임’을 연출하기도 했다.

프뤼돔은 여성이 선수에게 키스하는 전통도 폐지되는지 여부는 언급하지 않았다.

그러나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올해 대회에서는 키스 장면이 나오지 않을 전망이다.

투르 드 프랑스는 보통 7월에 열리지만, 올해는 코로나19 여파로 8~9월로 연기됐다.

올해 대회는 현지시간으로 8월 29일 프랑스 니스에서 출발해 프랑스 각 지역을 돈 뒤 8월 20일 파리에서 끝난다.

프뤼돔은 코스 주위에 모여 선수들을 응원하는 관중들도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선수들은 관중들이 집중하는 선수들 가까이에서 소리를 지르며 응원하는 과정에서 감염이 발생하는 상황을 우려하고 있다.

또 경주하는 선수들 무리에서 코로나19가 전염되는 상황이 최악의 시나리오다.

투르 드 프랑스에 참가하는 선수들은 개막 전 2차례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휴식일에도 검사를 받아야 한다. /연합뉴스



“이 기분 꿀맛” 탬파베이 레이스 최지만(26번)이 20일 미국 뉴욕 양키스타디움에서 열린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 뉴욕 양키스와의 원정 경기에서 홈런을 친 뒤 윌리 아미메스와 기뻐하고 있다. /연합뉴스

‘3억 달러 사나이’ 울린 최지만

‘연봉 427억원’ 최고 몸값 양키스의 에이스 콜 상대 홈런

소속 팀 탬파베이 4-2 승리

탬파베이 레이스의 한국인 타자 최지만(29)은 세계 최고의 투수로 꼽히는 게릿 콜(뉴욕 양키스)에게 유독 강한 모습을 보였다.

그는 콜을 상대로 역대 8타수 5안타(2루타 3개, 홈런 1개), 5타점, 1볼넷을 기록하며 말 그대로 ‘천적 관계’를 이뤘다.

최지만은 20일(한국시간) 미국 뉴욕 양키스타디움에서 열린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 뉴욕 양키스와 원정 경기에서도 콜을 상대로 강한 면모를

이어갔다. 5번 타자 1루수로 선발 출전한 최지만은 0-0으로 맞선 2회 첫 타석에서 콜과 상대했다.

그는 1사 무주자 상황 볼카운트 2볼-1스트라이크에서 바깥쪽 낮은 코스로 휘어들어 가는 체인지업을 경쾌하게 때렸다.

타구는 우측으로 크게 날아갔고, 그대로 관중석으로 꽂혔다. 시즌 2호 홈런.

4회 두 번째 타석에서 헛스윙 삼진으로 물러난 최지만은 6회 2사 1루에서 풀카운트 승부 끝에 볼넷을 얻어 ‘멀티 홈런’을 기록했다.

7회 대타로 교체된 최지만은 그대로 경기를 마쳤다.

2타수 1안타 1홈런 1타점 1볼넷 1삼진을 기록한 최지만의 시즌 타율은 0.169에서 0.179(67타수 12안타)로 소폭 상승했다.

콜을 상대로 한 성적은 8타수 6안타 2홈런 6타점 2볼넷이었다.

이날 경기는 탬파베이가 4-2로 이겼다. 콜은 6%이닝 2실점(2자책점) 6피안타 10탈삼진 1볼넷을 기록했다.

콜은 세계 최고의 투수이자 가장 몸값이 비싼 투수다. 그는 올 시즌을 앞두고 메이저리그 역대 투수 최고액인 9년 3억2400만 달러(약 3846억원)에 양키스 유니폼을 입었다.

총액 기준 역대 투수 1위다. 평균연봉은 3600만 달러(427억원)에 달한다. 최지만의 올 시즌 연봉은 85만 달러(10억원)이다. /연합뉴스